



GAME NEWS

‘데이브 더 다이버’ 프리퀄 신작 ‘반쵸 더 셰프’ 공개



▲ 반쵸 더 셰프 대표 이미지.
[이미지=반쵸 더 셰프 스팀 상점 페이지]

초밥 장인 반쵸, 새 게임 주인공으로

민트로켓이 6월 3일 소니의 온라인 쇼케이스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를 통해 신작 ‘반쵸 더 셰프’를 공개했다.

이 게임은 ‘데이브 더 다이버’의 팬 투표 1위를 차지할 만큼 두터운 팬층을 보유한 캐릭터 ‘반쵸’를 주인공으로 한 독립형 스핀오프 게임이다.

게임은 전작보다 19년 앞선 2004년을 배경으로, 스시 장인이 되기 전 젊은 시절 반쵸가 아시아 각지를 여행하며 명인들에게 요리를 배우는 성장 스토리를 담는다.

‘데이브 더 다이버’ 프리퀄 신작 ‘반쵸 더 셰프’ 공개



▲ 반쵸 더 셰프 인게임 스크린샷.
[이미지=반쵸 더 셰프 스팀 상점 페이지]

쿠킹 시뮬레이션+어드벤처 장르로 새 출발

게임의 장르는 쿠킹 시뮬레이션과 어드벤처를 결합했으며, 그래픽도 전작의 2D 픽셀에서 따뜻한 색감의 셀 셰이딩 3D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게임은 제한 시간 안에 직접 요리하고 손님에게 서빙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작에서 단순히 스시집 서빙에 그쳤던 것과 비교해 더 깊은 요리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정식 출시 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현재 PS5와 스팀에서 위시리스트 등록이 가능하다.

레트로 액션 어드벤처 ‘미나 더 할로워’ 출시 직후 극찬



▲ 미나 더 할로워 대표 이미지.
[이미지=Yacht Club Games 공식 웹사이트]

8비트 그래픽과 고딕 호러의 만남

Yacht Club Games의 신작 액션 어드벤처 ‘미나 더 할로워’가 정식 출시와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 신작은 고전 게임보이 컬러 스타일의 감각적인 8비트 픽셀 그래픽과 어두운 고딕 호러 세계관을 결합한 탐다운 뷰 방식으로 개발사 측은 기존의 점프와 공격 외에, 캐릭터가 땅속으로 파고들어 이동하는 ‘버로우’ 시스템과 채찍을 활용한 거리 조절 전투를 핵심 메커니즘으로 내세웠다.

레트로 액션 어드벤처 ‘мина 더 할로워’ 출시 직후 극찬



▲ 미나 더 할로워 인게임 스크린샷.
[이미지=미나 더 할로워 스팀 상점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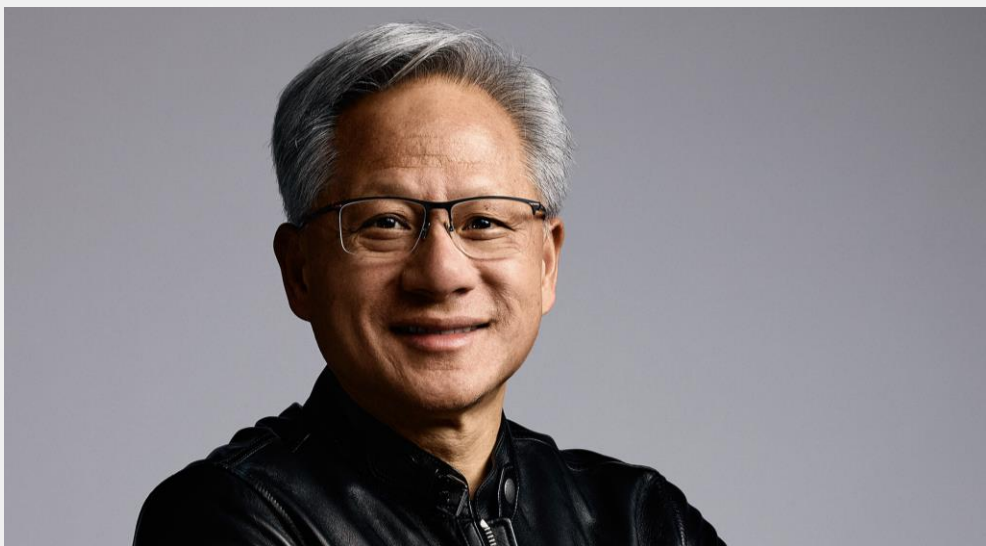
유저와 글로벌 평단의 높은 평가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글로벌 게임 평단 역시 ‘미나 더 할로워’를 향해 높은 평점을 쏟아내고 있다.

메타크리틱, 오픈크리틱 등 글로벌 리뷰 집계 사이트에서 평단은 “과거 캐슬바니아 시리즈의 분위기와 젤다의 전설식 레벨 디자인을 안정적으로 결합했다”는 평가와 함께 각각 메타 스코어 92, 평론가 평점 93의 점수를 받았다.

다만, 레트로 장르 특유의 높은 난도와 제한된 시야 등은 유저들의 성향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젠슨 황 CEO 방한, ‘e스포츠부터 대형 게임사까지’



▲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젠슨 황.
[이미지=엔비디아 뉴스룸]

첫 일정은 PC방, T1·페이커와의 만남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가 5일 방한했다.

황 CEO는 가장 먼저 e스포츠 게임단 T1의 전용 PC방 'T1 베이스 캠프'를 방문하여 '페이커' 이상혁 선수를 비롯한 T1 선수단과 만날 예정이다.

황 CEO는 과거 공식 석상에서 “PC 게임과 PC방, e스포츠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엔비디아는 존재할 수 없었다”며 한국의 게이밍 문화와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 온 바 있다.

젠슨 황 CEO 방한, ‘e스포츠부터 대형 게임사까지’



▲ 크래프톤 장병규 의장, 엔씨 김택진 대표.
[이미지=크래프톤, 엔씨 뉴스룸]

엔씨·크래프톤 회동...핵심은 ‘차세대 AI’

황 CEO는 방한 첫 일정으로 국내 e스포츠 현장을 찾은 데 이어,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 크래프톤 장병규 의장 등 국내 대형 게임사 경영진과도 비공개 회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세부 의제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엔비디아의 최신 그래픽 가속 기술뿐만 아니라 ‘피지컬 AI’와 ‘로보틱스 훈련’등의 차세대 AI 분야의 협력이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